

내 마음 아위어 가네



양 선 희

• 1960년 경남 함양 출생
•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 1967년, 계간 「문학과 비평」에 시 「일기를 구기다」 외
9편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



그대 떠난 빈 자리가 서러워
이렇게 방황하는
것일까. 끝내는 이루지도 못한 채
시들어버린 꽃잎들처럼. 어렵듯이
떠오르는 기억 속에 무심히
스쳐가는 그 얼굴. 이제는
떨어져간 시간들. 내 마음
아위어가네. 아, 가버린 그대를
잊기 어려워 나 이렇게 아픔에
떨고 있을 때, 아 그대는 진실도
모르는 채로 어디서 무얼하나요.
나즈막히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는
끝나버린 사랑들. 내 마음
아위어가네.

고개를 꼭 숙인 채 사람들
물결을 헤쳐나가는 운수의
발걸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긴
것은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였다. 운수의
요즘 마음 상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다음에, 그 풍경을
그린 듯한 노래. 숨죽인 호느낌
같은 여자 가수의 목소리는,
버팀목을 칭칭 감고 올라가는
나팔꽃 즐기처럼 운수의 발목을,
아니 온몸을 칭칭 감고 놓아주질
않았다. 노래의 일절이 끝나고
간주가 나가는 사이에 운수는
주위를 둘러봤다. 마침 레코드

가게 앞에는 인조목재에 니스
칠을 한 의자가 놓여 있었다.
운수는 그곳으로 걸어 가서
힘없이 풀썩 주저 앉았다. 아
가버린 그대를 잊기 어려워 나
이렇게 아픔에 떨고 있을 때, 아
그대는 진실도 모르는 채로
어디서 무얼 하나요. 나즈막히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는
끝나버린 사랑들. 내 마음
아위어가네.

후렴이 계속 흐르는 사이에
운수의 두 볼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올해 서른 일곱살이지?
적은 나이도 아닌데 왜
여태 독신일까?
저 정도로 준수한 용모라면
여자도 많을텐데.
무심히 떠오르는 생각들로
가득차는 머리가 무겁기도
했지만.....**

번 얼굴은 마주친 적은 있으나
통성명을 하며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적은 없는 진영주씨가 성우
뺨 치는 목소리로 자작시를
낭송하고 있었다. 자신의 시에
취한 듯 눈을 지긋이 감은 채
시를 낭송하는 진영주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윤수의 눈에는
무인도처럼 쓸쓸하게 보였다.

언젠가 문예지에 실린 그의
시를 읽으면서 본 약력 탓일까?
54년생이었으니까 올해 서른
일곱 살이지? 적은 나이도
아닌데 여태 왜 독신일까? 저
정도로 준수한 용모라면 여자도
많을텐데? 무심히 떠오르는
생각들로 가득차는 머리가
무겁기도 했지만, 윤수는
진영주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낭송을 마친 진영주는
홀이 떠나갈 듯한 박수소리와
양콜을 요청하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듯 두 눈을

썩차라이트처럼 휘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다. 그 눈길이
윤수에게 와 머물렀다. 휴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진영주는 그제야 빙그레
웃으면서 허리 굽혀 인사를 한
다음에 무대를 내려왔다.

“이것으로 오늘 시낭송회는
마치고 지금부터는 음주와
가무를 즐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장소가 좀 좁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날씨도 추우니까
서로 살냄새 맡으며 가까이 앉는
것도 좋겠죠? 자, 서 계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가 앉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
있던 사람들은 자리에 가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윤수야,
여기야 여기! 왜 이렇게
늦었니?” 아직도 문 앞에서
있는 윤수를 향해 손을
들어보이며 소리 치는 사람은
은희, 정숙, 혜수였다. 윤수는
그제서야 꿈에서 깨어난 듯
그들에게로 가 자리를 함께 했다.

“윤수·청춘에 건배! 애가 무슨
청춘이니? 내 청춘에 건배!”
하면서 은희와 혜수가 술잔을
높이 들었다. 윤수와 정숙이도
뒤따라 잔을 들어 술을 마시려는
순간이었다. “저어, 여기 좀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은 진영주였다. 그는

윤수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들의 시선을 의식한 윤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꼭꼭 눌러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친 뒤 시계를
봤다. 약속 장소인 이태원
「라이브」까지 제 시간에
도착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시간이었지만, 모두들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윤수는
서둘러 일어나서 택시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라이브」문을 열고 들어서자
행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몇

어눌하게 말은 하면서도
 운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눈치 빠른 혜수가 얼른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 앉아서 말을 했다.
 “이런 미남과 동석하는 영광을
 주시다니, 황공무지로소이다!”
 장난기 가득한 혜수의 말에 싱긋
 웃음을 보내며 진영주는 운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앉자마자 그는
 혜수에게 말을 건넸다. “혜수씨!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랑 인사
 좀 시켜 주십시오.”

혜수는 그를 운수에게
 소개시켰다. “이분이 미남이고
 “아니 두 분이 여태 모르는
 사이셨어요?” 혜수가 호들갑을
 떨며 말하자 그는 다시 말했다.
 “알기야 하지만 정식으로 소개를
 받고 싶어서 그러죠. 그렇다면
 좋아요. 그대신 이차는 영주씨가
 사는 거예요? 알았죠?”

시인이라는 것은 다 알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총각이라는 사실이야. 숯총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말이야.”

그에게 눈을 찡긋하며 혜수는
 그에게 운수를 소개시켰다.

“예, 저, 또 그리고 이분은,
 이운수씨! 파라다이스 신문사
 문화부 기자이고, 아직 처녀죠. 자
 이제 인사 나누시죠.”

혜수의 말이 어서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진영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운수에게 악수를 청했다.



“저는 운수씨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운수씨가 쓰는 기사는
 단 한줄도 빼 놓지 않고 읽었죠.
 그리고 스크랩까지 해 뒀습니다.”

진영주를 오래 세워 놓기가
 민망해진 운수는 그가 내밀고
 있는 손을 잡았다. 아픈 사람처럼
 손이 무척 뜨거웠다. 잡은 손을
 놓기 아쉬워하는 진영주에게
 혜수가 말했다.

“아니, 그 손 잡고 지옥까지 갈
 거예요? 노총각이 영큼하긴.
 빨리 손 놓고 앉아요. 사람들이
 다 두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것
 몰라요? 앉아요, 앉아!”

그제서야 진영주는 머리를
 굽적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운수는 사랑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슴에 따뜻한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기분을 느꼈다.



윤수는 사랑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슴에
따뜻한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기분을 느꼈다.
따뜻한게 너무나 그리웠던
탓일까?
영주가 보여주는 관심에
조금씩 마음이 이끌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다 보니
진영주였다.

“저는 또 나오시지 않을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자, 가시죠.”
윤수는 얼떨결에 진영주를 따라
물망초라고 간판이 달린
찻집으로 들어갔다. 약간 어두운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한쪽
구석에서 누가 손을 번쩍 들었다.
진영주는 씩씩하게 그쪽으로
걸어갔다.

“앉으시죠.” 자리를 윤수에게
권한 다음에 진영주는 흠뻑
헛기침을 한 다음에, 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소개했다.

“윤수씨! 제 동생 경주입니다.
나이도 서로 비슷하고,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때요, 제
동생? 괜찮아 보이죠?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윤수는 갑자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걸 느꼈다. ☹

따뜻한 게 너무나 그리웠던
탓일까? 영주가 보여주는
관심에 조금씩 마음이 이끌리기
시작했다.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읽기라도 한 듯이 진영주는
윤수에게 귀엣말을 했다.

“윤수씨, 제가 「라이브」 옆에
있는 「물망초」에서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잠시 후에 그곳으로
오시겠습니까?” 윤수가 대답도

채 하기 전에 진영주는 약속이
있으면서 일어섰다.

무슨 일일까? 나를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려는
걸까? 실타래처럼 엉킨 머리
속을 정리하기 위해 윤수는
「라이브」 밖 거리로 나왔다.
얼굴을 스치는 찬바람이 마음을
움츠려 들게했다.

“윤수씨, 여깁니다, 여기!”